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관)

#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명상  
**빅만평생통장**

●이자가 크면 크면 금리도 내릴때는 자동금리  
●고객이 주체적일 경우 저축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우서비스 제공  
문의처 060-023-0000  
**국민은행**

명예회장·노태평 / 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구로 경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현대화·세계화

## 이렇게 들었다

현대불교는 급변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파격적으로 1면에 '이렇게 들었다'란을 연다. 그때부터 시사의 초점이 되는 주제를 잡아 그 해답을 경전 조사·해설 등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급주에는 새해를 맞아 제 불보살의 서원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민약 내가 중생의 여러 악한 마음을 깨뜨려 줄 수만 있다면, 내가 무간지옥에 들어 있으면서 무량겁에 걸쳐, 중생 때문에 큰 고생을 받게 되도 고통으로는 알지 않으리라. <열반경>

나는 온갖 세계를 초월하는 큰서원을 세워 반드시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리라. 나는 무량겁에 걸쳐 큰 시수가 되어, 여러 가난한 자를 널리 구제치 못하면 동자를 이루지 않으리라. <무량수경>

원컨대 중생으로 하여금 편안하고 즐거워 갖기 귀찮고 걱정이 없게 되기를, 악한 짓을 행하고자 하면 그 모두가 이루어지지 않고, 닦는 바 선업을 다 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모든 악취의 분을 달아 절고 인선이 열반으로 이를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게 되기를, 만약 중생들이 여러 악업을 쌓은 탓으로 온갖 극중의 고통을 당할 때에는, 내가 다 대신 받아 줄 것으로, 그들이 해탈을 모두 얻어 지상의 깨달음을 완전히 성취하게 되기를...

### 서원



대면 그 일을 취지 아니 하오리라. <대승도교경>

나는 보살행을 닦아 진경의 일을 하는 속망자를 성취 하겠다. 온갖 장애를 제거하여, 영구히 없어서 남음이 없게 하겠다. 생사와 여러 마(魔)의 번뇌의 행위로부터 멀리 떠나겠다. 그리하여 해가 허공에 있고 연꽃이 물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아서, 시방을 두루 돌며 중생들을 교화하고 악도의 고통을 없애 주어 보살행을 갖추겠다. <문수사리발원경>

보살은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널리 온갖 중생을 위해 갖은 고통을 모두 받으면서, 그 해어릴 길 없는 생사·고통의 바다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겠다. 나는 널리 온갖 중생을 위해, 모든 세계, 모든 악취에서 미래의 무수한 시간이 다하도록 온갖 고통을 받는대도, 항상 중생을 위해 선고를 부지런히 되겠다. <화엄경>

대지불보살이 비로자나여

관련기사 3면



## “새싹불자는 미래불교 주인”

불자학생 해마다 감소...교계 뒤늦게 '비상' 흥미유발 프로 개발을...유아 포교도 나서야

12월19일 오전 10시 우이국민학교 3학년 4반 교실. “불교신자 손들어 보세요.” 답일 선생님의 말에 전체학생 45명중 7명이 손을 들었다. 잠시 뒤 2명의 학생이 주위를 살펴더니 손을 들었다. “교회에 나가거나 성당 나가는 사람은?”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요”라는 큰 소리와 함께 23명의 손이 번쩍 올라갔다. 전체 학생의 반 이상이 개신교나 천주교 신자인 셈이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어떨까. 15일 충남 성환 동성중학교의 불교신자를 조사한 바로는 1·2·3학년 전체 학생 수 3백30명중 불자는 72명. 한 학급 평균 8명인 셈이다. 서울 동덕여고 2학년 13반을 현장에서 조사한 바로는 반 학생 45명중 불자는 3명이었다.

또 최근 3년 서울지역 8개여고 표본조사 결과 불자 학생수는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였

### 새싹불자를 키우자

다. 본지가 우이국교, 동성중, 동덕여고 등 교육현장에서 조사한 바로는 역시 불자 청소년의 수는 극소수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고 있었다. <관련기사 7·8·9면>

이번 조사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와 관련한 사적을 읽어 본 적이 있는가와 캠프참여도에 대해서도 물었다. 교실은 일시에 혼란스러워졌다. 타종교를 믿는 아이들은 각자 자신과 경험을 무용담처럼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공진 불교를 믿는다고 손을 들었던 학생들은 아무 말없이 주위만 살피는 뿐이다.

끝에 가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는 물음에 불교를 믿고 있는 학생들조차 무섭다고 말

했다. 무시무시하고 커다란 나무인형이 꿈에 나타난다고도 했다. 반면 기독교나 천주교 학생들은 교회나 성당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이 된다고 대답했다. 이번 현장조사만으로도 불교가 얼마나 포교에 동원되어 왔고, 불교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해 5월 교육개혁위의 교육개혁안이 발표되면서 천주교의 경우 가톨릭계 학교장 연수를 통한 교육개혁안에 대한 집중연구와 공동대회를 모색하는 등 발빠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개신교도 각 교단별 청소년 단체활동과 봉사활동 등을 기록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 각 교회별로 적

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대응책을 찾아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련원 확보를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사찰 불교학생회를 비롯 각급학교 불교 학생반 운영등을 통해 불자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중도가 조성될 때 불교의 앞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소리이다. <한영우·도필선 기자>

### “나의 복됨보다 남의 불행 살피자” 율하종정 신년법어



조계종 종정 율하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반보를 양보하는 미덕으로 나의 복됨보다는 남의 불행한 바를 먼저 생각하는 자비로움이 가득한 세상, 살만한 세상을 기구어 나감에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구립 27일 순영호 19면 참조>

“북한수재민 도움이다” 종교지도자 33명 성명

일주 조계종 총무원장등 불교, 개신교, 가톨릭을 비롯한 각 종교 지도자 33명은 구립 22일 소외받는 이웃을 위한 복지정책과 북한 수재민을 도움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 수재민을 돕기 위해 이념과 체제를 초월 범종교, 범국민적인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손길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신년특집 24면 발행

願, 왜 세워야 하나 3면

각 종단 총무원장 새해 포부 4면

‘새싹 불자를 키우자’ 7·8·9면

새아침 지상법석-인허스님 11면

문화포교 활로 찾는다 16면

미래사회와 불교문화 17면

애틀랜타 향하는 불자선수 19면

‘부끄러운 불교인’ 달라지자 20면

108배와 건강 임상실험 21면

쥐띠불자 지배원 박종관씨 23면

신년전후 관게로 10일휴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아끼 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현대불교 임직원 일동

미래에 도전하여 품으로 사회를 창조하는 효성중공업

# 發進. 21世紀

고4제일주의 정신으로  
고4중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성중공업-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효성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중전사업부문**

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 중전기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역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변압기, 차단기, 전압조, 계측용 장비, 철갑상비

**기전사업부문**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전동기, 발전기, 감속기, 주사장치, 환경보전설비, 화학장치, 석도설비

**FA사업부문**

최첨단 MECHATRONICS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에서 분산, 집중제어 SYSTEM 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 계측설비, UPS, PLC 등 전제전지, 용류 SYSTEM, SERVO SYSTEM, FA SYSTEM, 신호처리 SYSTEM

**건설사업부문**

한시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오피스빌딩 등 각종 건축공사, 도로, 항만건설 등 토목공사, 포장공사, 운송공사